야옹이심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염려에도 **이심**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계절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기한) 알렸다.

저널은 제공망 혼란 속 높아진 물가에도 여전히 구매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회사들도 재고를 매끄럽게 늘려 쇼핑 계절 매출 부진 불안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날 미 상무부가 통보한 9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1% 늘어 전공가 예상치 1.6% 증가를 상회하며 근래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7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7월 잠시 뒤 1개월 만에 최대폭이다.자가용,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저번달 1.7%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 증가세가 검출되면서 많은 전문가가 8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을 것이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연말 쇼핑 계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고 소개했었다.월마트는 7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7% 늘렸다면서 연말 성수기 매출 호조를 전망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혀졌다.월마트는 2년 이상 영업해 지난해 실적과 비교 최대한 매장들의 수입이 8분기에 9.2%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COVID-19) 감염증(코로나(COVID-19)) 충격에서 멀어져 일상적인 이심 추천 소비행태로 복귀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설명했었다.또 이날 매출 1천406억 달러(약 162조원), 조정 주당순이익(EPS) 1.45달러 등 전공가 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선언했다.팩트셋이 집계한 전공가 예상치는 수입 1천353억3천만 달러, 조정 EPS 1.40달러였다.단 순이익은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38억1천만 달러(약 3조6천100억원), 주당 1.11달러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9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9.9% 증가한 367억2천만 달러(약 43조5천억원)의 매출을 기록, 월가의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다.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운영하는 데다 대량화대부분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제공망 혼란의 효과를 상대적 덜 받고 있다고 해석했었다.또 구매자들이 지난해 연말에는 코로나로 억제했던 쇼핑 욕구를 올해 채우려 할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이번년도 크리스마스는 '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